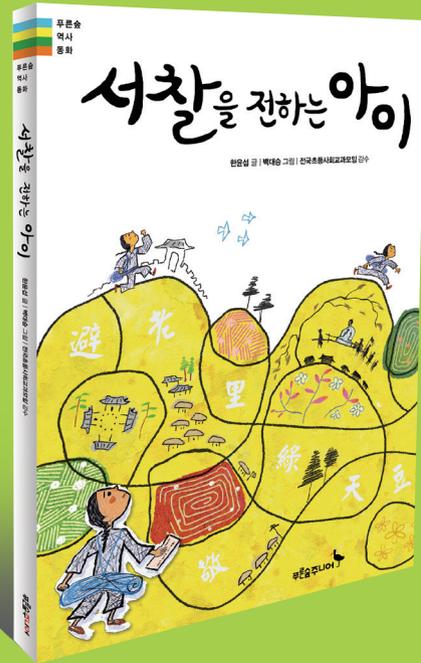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운섭 지음 | 백대승 그림

학생용



교과 연계

5~6학년 [국어] 독서 단원

5학년 [사회] 1학기 1-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5학년 [사회] 2학기 2-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주제어

#근대 #동학 농민 운동 #전봉준 #녹두 장군 #새야 새야

선정 내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 광양의 책 선정 도서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선정 도서 | 한국도서관협회 선정 우수 문학 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 도서 |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도서 |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 도서

한우리독서토론훈 추천 도서 | 열린어린이 겨울 방학 권장 도서

독서 지도안

오수연 선생님(서울 율현초등학교)

이 책을 소개합니다

동학 농민 운동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전봉준이어야 할까요? 이 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시점에서 역사 바라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녹두 장군 전봉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열세 살 소년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요. 아이들이 자칫 어려워할 수 있는 역사 소재가 매력적인 주인공과 극적인 이야기로 태어나 우리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역사가 어렵사리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곱씹는 '이야기'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는 동화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제안하며……

동학 농민 운동은 안으로는 정치 및 사회 개혁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한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민중 스스로 들고일어난 그 정신은 3·1 운동을 비롯한 항일 운동으로, 또 여러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바로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을 통해 조선 말기를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의 삶을 비춰 주며, 그들이 꿈꿨던 '좋은 세상'을 그려 보게 합니다. 또 행복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던지시 드러내며 '좋은 세상'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요.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막 4학년에 들어선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서도 너끈히 읽어 낼 만하지만, 본격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5학년 2학기에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주인공이 한양에서 전라도까지 여러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5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학습한 우리 국토의 지리 정보를 함께 다루기에 좋습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10차시 수업 계획안

단계	활동 내용	차시
독서 준비	<p>책 내용 짐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있게 보았던 팩션 장르 소개하기 동학 농민 운동 간단히 알아보기 제목과 표지 그림, 차례를 보며 내용 예상하기 	1차시
독서 활동	<p>[1~6장] 읽고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의 화폐 기입장 만들기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2차시
	<p>[7~11장] 읽고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2차시
	<p>동학 농민 운동 자세히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한 읽기 자료 간추리기 동학을 만난 후 백성들의 감정과 욕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1차시
	<p>[12~18장] 읽고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가 지나온 길을 지도에서 찾아보기 아이가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들은? 	1차시
독서 후	<p>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란? 녹두 장군이 피노리로 가지 않았다면? 	2차시
	<p>옛 사진 보고 이야기 짓기</p>	1차시

1차시 활동 : 책 내용 짐작하기

1.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펼쳐 낸 동화·영화·드라마·만화 등의 창작물을 '팩션'이라고 해요. 재미있게 보았던 팩션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작품을 골랐는지 정리해 볼까요?

제목 :

줄거리 :

시대 배경 :

특별히 재미있었던 점 :

별점과 한 줄 평 : ☆☆☆☆☆

2. 《서찰을 전하는 아이》의 주요한 역사적 소재인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다.

참고 영상_ EBS <역사채널e> 1894년 '그날'

3. 책 표지에서 제목과 그림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다음에 책장을 열어 차례에 실린 각 장의 제목을 읽고 예상되는 이야기를 모둠별로 발표해 봅시다.

장	제목	이름	이야기
1	거인의 배꼽		
2	다른 날과 다른 날		
3	혼자 길을 나서다		
4	책 장수 노인		
5	정자나무 아래 나그네		
6	약방 주인		
7	천주학 어른		
8	양반집 아이		
9	김 진사 어른의 부름		
10	행복, 처음 써 본 말		
11	곰나루 사공 할아버지		
12	시간이 멈춘 우금치		
13	주막에서 만난 사내		
14	산에서 제일 무서운 것		
15	암자에서 길을 찾다		
16	떨리는 마음		
17	아, 녹두여!		
18	기억의 끝		

3. 등장인물의 대사를 읽고 말하는 사람(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유추해 보세요. 그리고 가상 인터뷰를 통해 각 인물의 마음을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재미있는
연극놀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 ① 학생들을 ‘아이’ 팀과 ‘아이가 만난 사람들’ 팀으로 나눕니다.
- ② ‘아이’ 팀은 조용히 앉아 ‘아이가 만난 사람들’ 팀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만난 사람들’ 팀은 말없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실 여기저기를 걸어 다닙니다.
- ③ 선생님이 ‘아이가 만난 사람들’의 대사를 읽고, 그 인물의 호칭을 외칩니다. 이때 ‘아이가 만난 사람들’ 팀은 걸기를 멈추고, 각자 그 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예시) 책 장수 노인의 대사

“내가 너에게 어려운 한자를 읽어 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이냐?” (42쪽)

“오호! 두 냥을 빼앗겨 너무 슬프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이다.” (44쪽)

예시) 정자나무 아래 나그네 대사

“아이야, 내가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삼경을 배우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내 것을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말이나?” (54쪽)

“아이야, 너무 야박하다 생각 마라. 본디 배움이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진짜 제 것이 되는 법이다.”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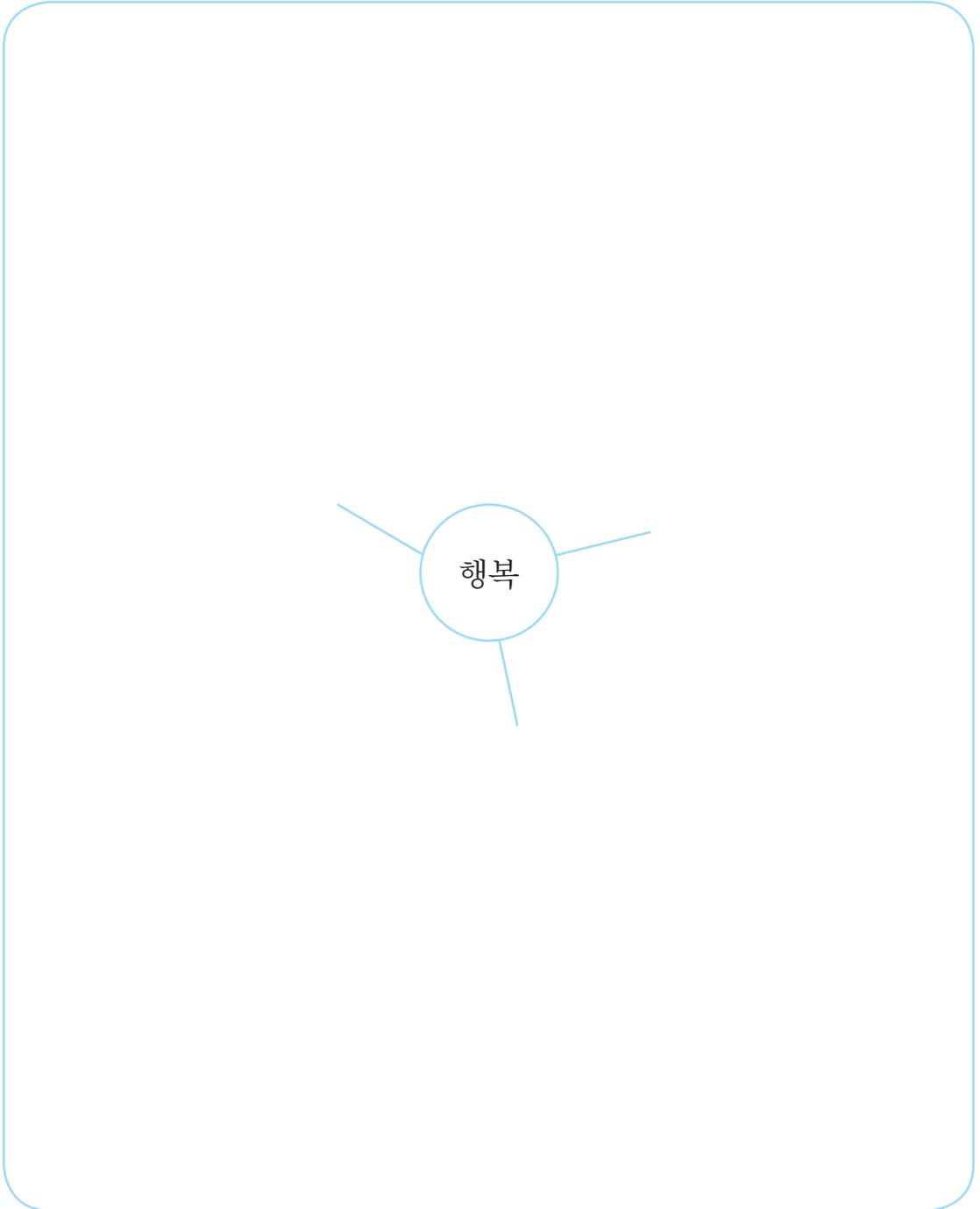
예시) 약방 주인 대사

“돈을 매겨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너는 아주 우둔하고 또 아주 영리하구나.” (66쪽)

- ④ 선생님은 ‘아이가 만난 사람들’ 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동작을 취했는지 인터뷰합니다.
- ⑤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이’ 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가 만난 사람들’ 팀의 인터뷰를 듣고 아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 ⑥ 팀을 바꾼 뒤, 다음 인물들의 대사를 읽고 활동을 반복합니다.

4~5차시: [7~11장] 읽고 활동하기

1. '행복'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다음, 모둠 친구들과 공통된 것들을 찾아보세요.



2.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행복이란, _____ 다.

3. 예부터 우리는 삶을 종종 '길'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었나요? 내일은 어떤 길을 걸을까요? 각각의 길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나요? 천주학 어른과 아이의 대화를 다시 읽고,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가야 할 곳은 공주예요.”

“가야 할 곳을 확실히 찾은 것 같구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그 길을 잃지 마라.”

“어르신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가는 길이다.”

나는 왠지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네 얼굴이 처음으로 행복해 보이는구나.”

[중략]

“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본문 102~103쪽)



6차시 : 동학 농민 운동 자세히 알아보기

1.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읽기 자료(사회 교과서, 역사 책, 선생님 자료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세요.

동학 농민 운동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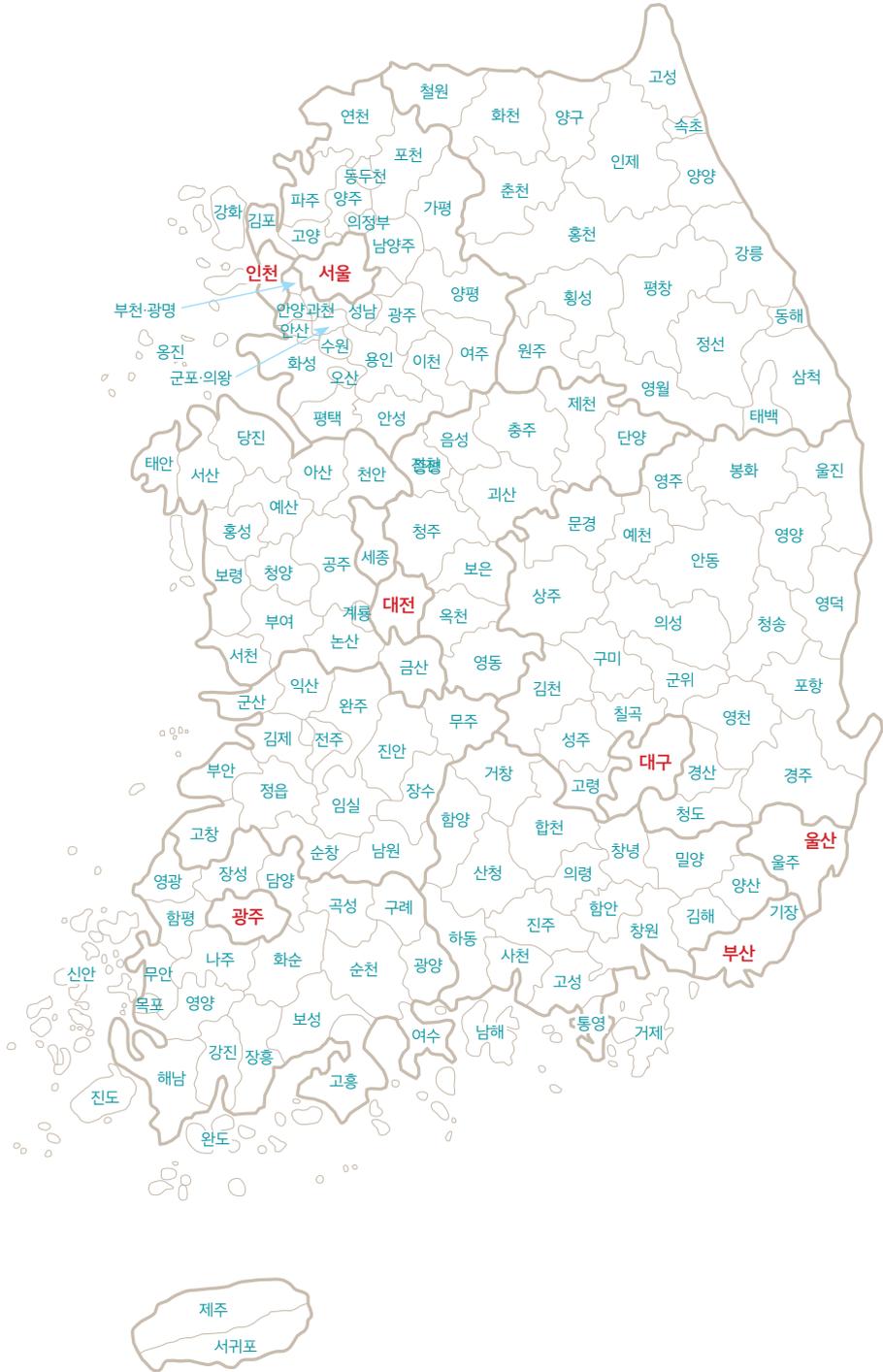
- 설명글로, 또는 마인드맵이나 표, 만화 등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해 정리해 보세요.

2.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니, 모든 사람은 멀리도 천시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요. 동학의 이런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아요.

동학을 만나기 전	동학을 만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성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 농민 운동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주장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p>① 위와 같은 동학의 주장에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p>
	<p>②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언제 그런 느낌을 받나요? (나는 ~할 때, ~한 마음이 든다.) 	<p>③ 나는 어느 때에 ①과 같은 느낌을 받나요?</p>

7차시 : [12~18장] 읽고 활동하기

1. 책 속에서 아이가 지나온 길을 찾아본 다음, 오늘날의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2. 한양에서 전라도까지, 아이가 만난 사람들을 포스트잇에 한 명씩 적어 보세요. 아이가 그 사람들과 주고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 누구 :

• 준 것 :

• 받은 것 :

• 누구 :

• 준 것 :

• 받은 것 :

• 누구 :

• 준 것 :

• 받은 것 :

3. '대가'는 '①물건 값으로 치르는 돈 ②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③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이나 희생' 등을 말합니다. 아이가 대가 없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공짜

초등학교 2학년 박호현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재미 보는 것 공짜

함께 읽으면
 좋은 동시



4.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배운 것

8~9차시 :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1. 만약 녹두 장군이 피노리로 가지 않았다면 자신이 꿈꾸었던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모둠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2.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 볼까요?

좋은 세상의 조건	이유

10차시 : 옛 사진 보고 이야기 짓기

1. 이 책의 작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풀어 갈 실마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옛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적은 다음, 그 낱말들을 활용해 나만의 역사 동화 줄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사진을 붙여요.

• 사진과 낱말을 이용해 이야기 짓기

•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 적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관련 자료 및 답사지 •

책 속에 등장하는 노래

- 장타령 (본문 81쪽) <https://youtu.be/WVlsZ75j-bQ>
- 춘천 삼발 장타령 (본문 94쪽) <https://youtu.be/7NaCdWTd158>
- 뱃노래 (본문 112쪽) <https://youtu.be/um9SNYpQsuw>
- 새야 새야 (본문 158쪽) <https://youtu.be/-K5Yi3fnlmg>

관련 도서

- 《평등과 자주를 외친 동학 농민 운동》, 이이화, 사파리, 2017.
- 《동학 농민 운동 가까이》, 서찬석, 어린논이, 2006.
- 《명랑 한국사 50 농민군이 꿈꾼 세상》, 이소영, (주)이수미디어, 2016.
- 《열세 살 동학 대장 최동린》, 이대흠, 생각을담는어린이, 2018.

관련 영상

- EBS <역사채널e> 1894년 ‘그날’ 영상 <https://youtu.be/5o4tWeAr7fE>

관련 답사지

- 황토현 전적지(국가 지정 사적 제295호) : 동학 농민 운동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격전지로, 갑오 동학 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1976년 4월 3일에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34호 황토현 전적지로 지정되었다가, 1981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사적 제295호로 승격되었어요. 그러다 2011년 7월 28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답니다.
- 우금치 전적지(국가 지정 사적 제387호) : 1894년 10월 23일부터 25일,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동학 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이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곳입니다. 1973년에 건립된 동학 혁명 위령탑이 서 있어요.

